

SK에너지, 인사 · 임금체계 개편

새로운 HR 시스템 도입 검토 ... 생산성 향상에 비용절감 기대

SK에너지가 인사관리와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SK에너지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HR(Human Resource)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본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거나 회사 안팎에서는 새로운 HR 시스템이 임직원의 연봉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상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직원의 보상 수준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며, 어려울 때 덜 받고 실적이 좋으면 더 많이 받는 유연한 보상시스템을 만들어 회사의 지속 성장과 구성원의 고용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임직원들과의 협의와 자발적 동의 등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5/20>